

‘인구미달’ 여수갑...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30곳 획정기준 불부합”

여수갑·을 합구 의석수 감소 우려 “순천과 합쳐 의석 3개로” 제안도

내년 총선에서 여수갑이 인구미달로 인근 지역과 합구될 예정이다.

여수갑이 합구될 경우 지역 국회의원의 의석수 감소도 예상돼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총선에서 인구수 변동으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여수 갑을 포함해 30곳이라고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수 상한 초과, 인구범위 하한 미달,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구가 30곳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 최대 27만1042명, 최소 13만5521명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이다.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이고, 인구수가 미달된 선거구는 여수 갑을 포함해 11곳이다.

인구 상한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화성읍으로 35만1194명을 기록했다. 인구 상한선을 8만152명 초과해 분구가 유력시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하한에 미달돼 합구가 유력한 곳

은 여수갑으로 인구 최소 조건에 9772명 이 미달됐다.

여수 갑 선거구의 합구가 현실화되면서 커지면서 여수는 갑·을 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수갑이 합구될 경우 국회의원 수도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지역 정치력이나 위상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1석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희재의원(민주당·여수을)은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개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흥군을 더해 여수 갑·을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권이나 지역 정서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여수를 1개로, 순천을 2개로 늘리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중이다.

순천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7만 8천737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웃돈다.

한편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불부합 선거구는 부산 북구강서구를 1곳이다.

분구 대상인 인구범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이다.

합구 대상인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

구는 여수갑 외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순창군·김제시부안군)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획정위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 및 사·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획정위 자료를 토대로 제22대 총선 선거일 13개월 전인 3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선거일 1년 전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김선옥·박상지 기자

김영록 지사 “농어민 보관 가공농식품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을”

한전에 적극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7일 “농어민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김치 등 일부 가공농수산물식품이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논리를 잘 개발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구례군에서 빛어진 저온저장고 보관 품목과 관련해 빛어진 농사용 전기 사용 논란을 언급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000여 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반발이 확산하자 한전은 지난달 29일 판매 단가가 일반용보다 낮은 농사용 전기의 사용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다.

이에 김 지사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한 만큼, 농림·해양·에너지산업 등 해당 실국이 협업체 농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 논리 개발을 철저히 해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마른 김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업인이 물김을 생산해 건조작업까지 해왔다”며 “지금은 생산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방식을 인정해 가공품이 아닌 수산물식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김 가공공장이 농사용 전기를 적용 받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명절 기간 농수산물식품의 청탁금지법 완화 시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까지 농수산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 구례에서 문제가 된 김치를 비롯해 일부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완화 당시 사례 등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미래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S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조성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을 비취 국민 감정에 맞게 농수산물로 분류되도록 현장 대처를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 노력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여 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박람회장은 지난해 10월 ‘여수세계박람회 관리·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개발 여건이 마련됐다”며 “개발계획 수립에 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기 추진하고,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또 “전남이 세계적 백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바이오캠퍼스’를 백신산업 특구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추진 계획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해나가지”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방수·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마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